

영남지역 논 이용 공심채 무가온하우스 재배시 수량향상 적정 예취높이

황정동^{1*}, 서중호¹, 김상열¹, 배현경¹, 이휘종¹

¹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,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

[서론]

공심채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엽경 채소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으나, 최근 국내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로, 논에서 재배 가능한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이 시급하다. 논 이용 공심채 무가온하우스 재배시 수량성 향상을 위한 적정 예취높이를 구명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공심채는 리아오(Rio)를 시험품종으로 하여 1월 10일 정식하여 시비량을 1.6-2.4-1.6kg/10a 사용하였다. 재식거리는 60×20cm, 60×25cm로 시험하였고, 예취높이는 지면에서 3, 6, 9, 12cm로 하였으며, 수확은 10회 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공심채를 6월 7일~8월 28일 사이에 2주 간격으로 채취하면 10a당 생체수량이 가장 높았으며 공심채 예취높이를 9cm로 자르면 생체수량이 14,036~14,235kg/10a으로 3~6cm 예취높이에 비해 생체수량이 3,197~3,344kg/10a 증수되었다. 공심채 예취높이를 9cm의 소득은 상품화율 90%, 판매율 50% 적용하면 판매수량이 6,361kg/10a으로 조수입이 22,772천원/10a으로 소득이 1,968만원/10a으로 아주 높으며, 3~6cm 예취높이에 비해 소득이 411~521만원/10a 증가 되었다. 공심채 재식거리가 60×20cm과 60×25cm에서 수량이 차이가 없었다. 공심채 예취 높이를 9cm로 자르면 1번 파종해서 4월에서 9월까지 지속적으로 생체 수확이 가능하였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(과제번호: PJ0115552017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.

*주저자: Tel. 055-350-1166, E-mail. hcd0094@korea.kr